

지게차 운전 자격증 따서 '인생 2막' 열자

산업인력공단 분석...50·60대 인기, 여자는 한식조리 부동산 가격 뛰면서 공인중개사 관심...올 12만명 응시

퇴직 후 '인생 2막'을 고민하는 50·60대 중장년층 사이에 자격증 따기 바람이 불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두번째나 세 번째 명함을 준비해야 하는 중장년 '회사 준비생'들이 많아지면서다. 창업이나 재취업 일자리에 유리한 자격증이나 전문 지식으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에 몰리는 중장년층도 늘어나고 있다.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50세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는 6만3929명으로 전년도(5만256명)에 견줘 27.2%나 늘었다. 4년 전(4만818명)과 비교하면 무려 56.6%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50세 미만 취득자 수는 전년

대비 1% 감소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재취업 일자리를 위한 중장년층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40대 취득자도 지난해 8만9212명으로 전년도(8만1029명)보다 10.1% 늘었고 4년 전인 2013년(7만4982명)에 비해 19%나 증가했다. 반면, 30대 취득자는 2013년 9만 3071명에서 2017년 9만9484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50대 이상 구직자들은 지게차운전기사 등 중장비 관련 기사 자격증이나 한식조리기사 등 요리자격증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50대 이상 중장년 남성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사(7420명)였다. 이어 굴삭기운전기사(4778명), 건축도장기능사(2381명), 전기기능사(2253명), 조경기능사(1959명) 등의 순이었다.

50대 여성들의 경우 지난해 한식조리기사(6351명) 취득자가 가장 많았고 양식조리기사(952명), 세탁기능사(925명), 건축도장기능사(805명), 중식조리기사(685명) 등이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중개 수수료도 많아지면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매력과 창업 준비 자금이 자영업에 비해 적다는 점 등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치러진 제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지원자(2차)가 12만5652명으로 5년 전인 2013년(6만2380명)의 2배가 넘는

다. 광주·전남에서도 7197명이 원서를 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응시자(2차)가 2016년 11만71명으로 집계되는 등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퇴직자 뿐 아니라 젊은층도 관심을 갖는 자격증이 됐다. 당장, 올해 치러진 시험(2차)에서도 50대(2만9629명) 뿐 아니라 40대(4만99명), 30대(3만4686명), 20대(1만3686명) 응시자도 적지 않았다.

컴퓨터를 활용한 SNS,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와 유튜브)에 도전하는 5060 세대가 늘면서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도 인기가 높다.

김대수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재취업 일자리를 얻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전문 기술 자격을 취득하려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28.01 (-27.00)	↓ 금리(국고채 3년)	1.81 (-0.04)
↓ 코스닥	665.74 (-4.05)	↑ 환율(USD)	1125.40 (+0.02)

광주·전남 경제 성장세 둔화 뚜렷

철강·조선 증가, 석유화학 감소, 차·가전 현상유지

한은 4분기 경제동향 모니터링

광주·전남지역 경제 성장세 둔화가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향후 개선 흐름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7일 내놓은 '4분기 지역경제동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생산은 소폭 감소했고 소비·투자는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분야는 철강과 조선이 전 분기대비 증가한 반면,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정제 부문은 주요업체의 정기보수와 정제마진 축소 등으로 소폭 감소했고 자동차·가전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자동차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특근 재개에도 해외판매 위축 등이 이어지면서 전분기와 비슷한 흐름을 유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제자리 걸음을 했다. 도·소매업의 경우 백화점 명품매장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대형 마트는

소폭 감소하면서 보험 수준을 나타냈다. 올 들어 명품 매출은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전년 대비 8.5%,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9.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비 분야의 경우 명절 수요로 육류, 과일 등은 증가하겠지만 전반적 소비심리 위축으로 보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한국은행은 예측했다.

투자쪽으로는 설비투자의 경우 전분기보다 증가했고 GS칼텍스의 올레핀 생산 시설 투자 등 대규모 신규투자가 예정된 데다, LG화학도 대규모 설비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둔화 등으로 보험세를 나타냈고 향후에도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등으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도 전년 동기와 비슷한 보험세를 유지하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은행 창립 50주년 이벤트 당첨 고객 초청 경품 증정식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6일 본점 1층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응답하라! 1968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들을 초청해 경품 증정식을 가졌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968년 11월 20일 이래 창립 50주년을 맞은 광주은행이 그동안 함께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했다.

대상 당첨자 1명에게는 5500만원 상당의 기아자동차 K9이 전달됐으며, 금상 2명에게는 각 150만원 상당의 스타일러, 은상 5명에게는 각 10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응당상 1000명에게는 각 1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트콘이 전달됐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이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응답하라! 1968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들 경품 시상식 후 송종욱(왼쪽 4번째)은 은행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중기, '신용카드 수수료 세액공제 확대' 기대

중기중앙회 541개 중기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 조사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세 지원대책 중 가장 기대되는 지원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세액공제 확대'를 꼽았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541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정부의 소상공인·조세 지원대책 중 '부가가치세법 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확대' (67.7%·복수응답)가 가장 기대된다고 응답했다.

이와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 (61.3%),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 (32.3%) 등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 조세지원 방안으로 '기준 조세지원 확대' (44.7%)를 가장 많이 제시했으며, '실패 시 재도전 지원 확대' (19.8%), '영세기업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16.8%)가 뒤를 이었다.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선 고용중대세 확대(43.8%), 고용·산업 위기 지원

지원 확대(26.1%)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고용지원 세제에 기대를 거는 것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응답 기업들은 지난해와 올해 세제개편안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 (38.8%)와 '비상장기업 대주주 과세 강화' (17.7%) 등을 꼽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축소'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

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중기중앙회는 보고 있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 (37.3%),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 (23.3%) 등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조세지원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분야로는 경영안정 (47.0%)과 고용지원 (28.8%), 투자축진 (10.2%) 등 순이었으며,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42.9%)와 감면을 확대 (32.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화와 이메일, 팩스 등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1%포인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수소차 넥쏘 '신차안전도' 최우수 3관왕

SUV·친환경·어린이보호 부문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사진)가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 신차안전도평가' (KNCAP)에서 최우수 3관왕에 올랐다.

26일 현대차에 따르면 넥쏘는 국토부의 신차안전도평가에서 중형스포츠유틸리티차(SUV) 부문, 친환경차 부문, 어린이보호 부문에서 최우수 차종으로 선정됐다.

넥쏘는 수소탱크의 안전성과 초고장력 강판 적용, 보행자 충격 최소화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현대차 싼타페와 벨로스터는 중형 SUV와 중형 세단 부문에서 각각 신차안전도평가 1등급을 받았다.

기아차 K9은 대형 세단 부문(100점 만점에 92.0점)과 사고예방장치 부문(15점 만점에 14점)에서 최우수 차종으로 뽑혀 2관왕을 차지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G70은 중형 세단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92.9점을 받아 최우수 차종에 이름을 올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새로운 소리를 듣다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2018-2019
신양파크호텔

겨울축제

기간: 2018.12.1(토) ▶ 2019.2.28(목)

축제 1 **객실 겨울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6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티파니" 감사축제**

커피 3,000원
돈까스 코스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